

『강역고(疆域考)』를 통해 본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이진구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석사과정

목차

I. 『疆域考』에 대한 檢討	III. 茶山의 史學史的 位相
1. 『疆域考』著述의 背景	1. 朝鮮後期 歷史地理學의 集大成
2. 『疆域考』에 대한 分析	2. 韓國史의 再認識
II. 丁若鏞의 百濟史 認識	맺음말
1. 百濟史 認識에 있어서의 特徵	
2. 馬韓과 百濟와의 關係 考察	

국문요약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개혁가이다. 광복 이후 그간 경학과 경제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산에 대한 연구 성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다산이 한편으로는 이익과 유형원의 학풍(經世致用)을 이어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제가·유득공 등과 교류하면서 북학사상(利用厚生)을 섭취하여 ‘다산학(茶山學)’이라는 거대한 학문의 봉우리를 만들어 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산의 사학(史學)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했으며, 『강역고(疆域考)』라는 그의 저서에 대한 인식도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경한 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강역고』를 통해서 정약용의 백제사(百濟史) 인식에 대해 한걸음 더 접근하고, 역사가로서의 다산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우선 『강역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저술의 배경을 살펴보고 『강역고』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강역고(疆域考)』를 통해 본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

『강역고』 저술의 배경으로는 역사지리학(歷史地理學)이 하나의 학문분과로 형성되고 있었던 시대 상황, 근기남인과 노론 북학파로부터 이어진 학문적 성과의 통합,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다산의 역사지리에 대한 성취 등을 들 수 있다.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정약용은 『강역고』 저술을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이를 완성하였다.

한편 『강역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대정신의 산물인 『강역고』는 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한반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며, 기존 역사지리서에서 나타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구성은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기까지의 고대국가의 강역과 역사를 고증하고 있었다. 특히 강역고가 한국고대사를 이원적으로 파악한 점, 삼한과 삼국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 점, 남인계의 일반적 인식이었던 삼한정통론을 극복하려 한 점, 역사의 원동력을 물질적 측면에서 해석한 점 등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며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다산이 지녔던 백제사 인식에 있어서의 특징을 밝혀내고, 마한과 백제와의 관계 고찰을 통해 그가 백제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는 시조전승(始祖傳承) 문제에 있어, 비류-온조의 부는 우태라는 주장을 지지하고, 백제의 지배층을 부여 계통이라고 보았다. 위례성(慰禮城)의 위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조가 처음 도읍한 위례는 서울의 혜화문 밖 10리 지점이고, 온조 13년에 도읍을 옮긴 하남위례성은 광주고읍이라고 고증하였다. 한성함락 이후 한강(漢江) 영역 영유 문제에 있어서는 장수왕의 한성공격 이후에도 한강이남지역은 여전히 백제의 영역이었으며, 고구려는 한강이북지역까지만 차지하였다고 보았다. 백제의 멸망원인에 대해서는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 천도(遷都)의 실책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하였다.

더불어 마한과 백제와의 관계 고찰을 통해, 다산은 고대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해석에 있어 물질적·제도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양자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하였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그가 종래 신라 중심의 연구경향을 탈피해 백제사 연구에 주목하면서, 한국 고대사를 총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균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음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고대 제국(諸國)의 역사를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즉, 다산은 고대국가에 대해서 문헌고증(文獻考證)을 통해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산의 역사 이해의 사학사적 위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다산에 의해 봉당을 초월한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조선후기 역사지리학의 집대성(集大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보편(중화)과 자존(조선)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한국사의 사·공간에 대한 재인식(再認識)이 나타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다산의 백제사 인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인물이라는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못했던 역사가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다산에 대한 지평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백제사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고, 나아가 삼국에 대해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 자신이 한국사를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역사인식(歷史認識)의 문제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강역고』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은 ‘역사전쟁(歷史戰爭)’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인식해야 할

지를 재고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 강역고, 정약용, 백제사, 역사인식, 역사지리학, 문헌고증, 재인식

머리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개혁가이다. 그는 여러 갈래의 사상조류를 종합했으며, 창의적이고 풍성한 결실을 거둔 인물이었다.¹⁾ 다산이 보여준 사상 체계와 학문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있을 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후 한말(韓末)인 1883년 고종의 명으로 다산의 저술이 필사되어 어람을 위해 올려졌고, 1899년 황성신문에는 2회에 걸쳐 다산을 소개하는 글이 실린 바 있었다. 다산에 대한 연구²⁾는 일제시대(日帝時代)인 1934~38년에 다산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학운동이 일어나고, 신조선사에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가 활자본으로 간행되면서 시작되었다.³⁾ 광복(光復) 이후 북한에서는 최익한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홍이섭과 이을호 등에 의해 다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⁴⁾ 이를 통해 경학연구와 경세학연구라는 측면에서 그에 대한 접근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들에 힘입어 다산에 대한 연구는 역사, 철학, 정치학, 경제학, 지리학, 문학, 의학, 교육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⁵⁾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릴 정도로 광범위한 그의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성과가 점차 드러났다. 더불어 다산은 이러한 학문적 성과 위에서 '다산학(茶山學)'이라는 거대한 학문의 봉우리를 만들어 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산의 사학(史學)에 대한 연구는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60년대에 북한의 박시형과 우리나라의 고병익에 의해서였다.⁶⁾ 그

- 1) 정약용은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학(6경4서), 경세학(1표2서), 예학·약학, 문학·역사학·지리학·언어학·풍속학·의학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저술은 5백여 권에 달하는데, 크게 경집 232권과 문집 267권으로 나누어지고, 현존하는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수록되어 있다.
- 2) 다산에 대한 연구사 검토로는 다음이 참조된다. 다산학술문화재단, 1999, 「다산관계저작총목록」, 『다산학』창간호, 전통과현대 ; 금장태, 2002, 「다산실학의 의의와 다산학 연구사의 개관」, 『정약용 -한국실학의 집대성-』,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3)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는 다양한 필사본 상태로 전해져 오던 다산의 저술을 정인보·안재홍이 154권 76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이것을 저본으로 2,000편이 넘는 논문과 300편 이상의 석·박사논문, 100권이 넘는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오탈자가 많고 다산의 저작 가운데 빠진 것도 있어, 정분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0여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2년 다산 탄신 250주년 기념에 발맞춰, 다산학술문화재단에 의해 기존의 문제점이 보완된 전 38권의 새로운 체제로 『정분 여유당전서』가 발간되었다(다산학술문화재단, 2013, 『정분 여유당전서』, 사암).
- 4) 최익한, 1955, 『실학과와 정다산』, 국립출판사 ; 홍이섭, 1959, 『정약용의 정치경제사상의 연구』, 한국연구도서관 ; 이을호, 1966, 『다산경학사상연구』, 을유문화사.
- 5) 이와 관련하여 정만조에 의하면 광복 이후 2002년까지 조선후기 인물사 관련 논문이 2145편이 나왔는데, 그 중 무려 352편의 논문이 다산 정약용에 대한 것으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었다(정만조, 2004, 「조선후기 인물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창간호, 한국인물사연구회, p.78).
- 6) 박시형, 1962, 「다산 정약용의 력사관」, 『정다산 연구』, 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 고병익, 1965, 「다산의 진

『강역고(疆域考)』를 통해 본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

결과 다산의 역사관, 다산의 기예론(技藝論)을 중심으로 한 진보관이 각각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후 70년대에는 반윤홍이 다산의 민족주체론을 강조하였고, 80년대에는 한영우가 다산의 사론을 규명하였으며, 90년대에는 정창렬·조성을 등에 의해 다산의 역사인식이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⁷⁾ 이처럼 그동안 다산의 역사인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실학자(實學者)’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실증에 입각한 문헌고증의 심화와 합리적 비판정신’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선학들의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로서의 다산에 대한 접근은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경한 듯 싶다. 또 『목민심서』·『경세유표』·『흠흠신서』는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로 알려져 있으나, 상대적으로 『강역고(疆域考)』⁸⁾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다산의 역사인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역사가로서의 다산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우선 『강역고』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강역고』가 저술될 수 있었던 배경과 『강역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대정신의 산물이며 다산의 대표적 역사지리 연구서인 『강역고』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음으로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다른 학자들과 구분되는 다산의 백제사 인식에 있어서의 특징을 밝혀내고, 마한과 백제와의 관계 고찰을 통해 다산이 한국고대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산의 역사 이해의 사학사적 위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산에 의해 조선후기 역사지리학의 집대성이 이루어지고, 한국사의 재인식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며 역사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날 그의 백제사 인식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족하나마 언급해 보고자 한다.

I. 『疆域考』에 대한 檢討

1. 『疆域考』 著述의 背景

『강역고』라는 다산의 저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약용에 의해 이러한 서적이 간행되게 된 배경을 언급하고자 한다. 시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의 영조·정조·순조가 재위하던 기간으로서 조선후기 사회의 마지막 단계이자, 조선 말기로 넘어가기 직전의 역사적 변동기였다. 이 시기 역사학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였다. 하나는 사회가 역동적인 변화에 놓여있었지만, 중화 중심의 화이론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적 관점

보관 -그의 기예론을 중심으로-, 『조명기박사화갑기념 불교사학논총』, 간행위원회.

- 7) 반윤홍, 1977, 「다산 정약용의 민족주체론」, 『현대사학의 제문제(남계조좌호박사화갑기념논총)』, 일조각 ; 한영우, 1983, 「다산 정약용의 사론과 대외관」, 『김철준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 정창렬, 1990, 「실학의 역사학 -의의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하), 창작과비평사 ; 조성을, 1992, 「아방강역고에 나타난 정약용의 역사인식」, 『규장각』15, 규장각한국학연구소.
- 8) 『강역고』에 대한 역사학계의 선행연구로는 조성을, 1992, 위의 논문 ; 이명아, 1996,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을, 2008, 「『아방강역고』와 『대동수경』의 문헌학적 검토」, 『다산학』13, 다산학술문화재단 ; 강남욱, 2012, 「정약용의 삼국영토인식 연구 -『아방강역고』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에서 여전히 역사를 파악하는 보수적 양상을 지닌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사회 변화에 따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서서히 민족 중심의 세계관을 통해 역사를 인식하며 물질적 측면에서의 진보에 보다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며, 그렇다면 이 시기 역사학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후자였다.⁹⁾

다산은 후자의 입장에 선 대표적 인물인데, 이는 그가 저술한 기예론(技藝論)에 담겨있는 진보관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는 기예론에서 인간과 금수의 차이점, 기예의 중요성과 기능성, 기예의 발전방법 등을 논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늘이 금수(禽獸)에게는 발톱(爪)을 주고 뿔(角)을 주고 단단한 발굽(硬蹄)을 주고 날카로운 이(利齒)를 주고 독(毒)을 주었다 ...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서는 지려(智慮)와 교사(巧思)가 있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예(技藝)를 습득하여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 것이다 ... 그러므로 아무리 성인(聖人)이라 하더라도 천 명이나 만 명의 사람이 함께 의논한 것을 당해낼 수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 기예(技藝)가 정교하게 되고, 세대(世代)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기예가 더욱 공교하게 된다.¹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산은 인간과 금수의 차이를 삼강오륜의 유무가 아닌 기예 습득능력의 유무에서 찾았다. 또 성인일지라도 천 명이나 만 명의 사람이 함께 의논한 것을 당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과 세대가 내려올수록 기예가 진보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기예론에는 ‘인간역사의 진보(進步)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으며, 역사진보의 주체는 중인(衆人)이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¹¹⁾ 이는 우수한 자질을 타고난 성인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본 성리학적 역사관과는 분명 차이가 나며, 다산의 역사인식의 특징을 정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¹²⁾ 이러한 발전관은 해강 최한기 단계에 이르러서 새로운 문명의 창출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역사학을 경학(經學)으로부터 분리하여 전문화된 학문분과로서 독립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었다. 안으로는 앞선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의 양적·질적 축적을 통해 별도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확고해지고, 밖으로부터 전해진 서학서나 지리서·지도 등을 통해 지방과 외국 사정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관념적 측면에서 벗어나 과거의 영역이나 현재의 지리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¹³⁾ 이에 과거의 강역과 지리를 역사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역사지리학(歷史地理學)¹⁴⁾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9) 박인호, 2001, 『제3판 한국사학사대요』, 이회, pp.134~136.

10) 정약용, 『與猶堂全書』제1집 권11, 技藝論. “天之於禽獸也 予之爪予之角 予之硬蹄利齒 予之毒 ... 以其有知慮巧思 使之習爲技藝以自給也 ... 故雖聖人不能當千萬人之所共議 ... 故人彌聚則其技藝彌精 世彌降則其技藝彌工”

11) 한영우, 1989, 「19세기 초 정약용의 역사관과 대외관」, 『조선후기 사학사 연구』, 일지사, p.357.

12) 그러나 그는 물질면에 있어서의 진보를 논하고는 있지만 이를 인륜이나 도덕의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하지는 못했다(조광, 2010, 『한국사학사의 인식과 과제』, 경인문화사, p.28).

13) 박인호, 2001, 앞의 책, p.167.

『강역고(疆域考)』를 통해 본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

이러한 역사지리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국토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었다. 즉, 국토의 심층적 파악과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지리지와 지도의 편찬이 추진된 것이다. 16세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은 이미 변화된 지리지식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개편하기 위해 영조대에 『여지도서』(1765),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1770)가 편찬되었다. 지도로는 『해동지도』(1750년대), 『동국여지도』(1770) 등의 채색지도집이 제작되었다.¹⁵⁾

다음으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요사』, 『일통지』, 『성경지』 등 후대의 지리서에 대해 학자에 따라 주목하거나 혹은 비판하면서 조선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점차 자각하고 있었다.¹⁶⁾ 당시 역사지리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국내 자료의 한계를 벗어나 중국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발전상이었다. 더불어 아직 중화 중심의 화이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과거의 역사지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사지리학 연구가 심화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후기 성리학이 예론(禮論),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 등의 논쟁을 거치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고증하고 검증하는 연구방법이 진전되었기 때문이다.¹⁷⁾ 이러한 방법론이 역사지리학을 연구하는데 반영됨으로써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리에 관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구명(究明)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 시기의 역사지리학은 지리비정을 위주로 하는 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고증과 객관성을 추구하여 해당시기 역사학의 발전을 이끌고, 자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후 역사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인들이 다산이 『강역고』를 저술할 수 있도록 하나의 측면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한편 『강역고』의 저술은 정약용이라는 개인에 주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¹⁸⁾ 다산은 1762년(영조 38) 6월 16일(음력) 한강 강변의 마재(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연천현감, 화순현감, 예천군수, 울산부사, 진주목사 등 수령직과 호조좌랑, 한성서윤을 역임한 바 있는 정재원이고, 어머니는 해남 윤씨로 윤두서의 손녀이다. 다산의 가문은 근기남인(近畿南人)으로 분류된다. 그는 어려서는 부친으로부터 글을 배웠고, 16세에 이가환·이승훈·이벽 등을 통해 성호 이익의 학문을 접하였다.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그는 서울 근교인 광주·안산 등 한강 일대에 살고 있던 남인들과 교류를 가질 수 있었는데, 당시 광주 일대에는 서학자(천주교도)들이 많아 서학(西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후 다산은 28세에 벼슬길에 올라 정조의 치세 하에 규장각에서 근무하면서 북학파의 북학사상

14) 이 글에서 사용하는 역사지리학(歷史地理學)의 개념에 대해서는 박인호, 1996, 『조선후기 역사지리학 연구』, 이회, pp.13~17 참조.

15) 한영우, 2004,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pp.390~391.

16) 중국에서 편찬된 지리서가 조선의 역사지리서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박인호, 2003, 「명·청대 중국 지리서에 나타난 대조선 역사지리인식」,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회 참조.

17) 박인호, 2003, 위의 책, p.18.

18) 정약용의 생애는 유배 이전의 전기와 유배 이후의 후기로 나눌 수 있다. 다시 전기는 28세에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오르기 전과 후로 나누어지고, 후기는 유배 시기와 유배가 풀린 이후로 구분된다(조성을, 1994, 「정약용」,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과비평사, pp.326~328).

(北學思想)¹⁹⁾을 체득하고 학문적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그는 박제가와 같이 증두법을 연구했고, 북학을 위한 전문관청으로 이용감 설치를 제창했으며, 『북학의』, 『열하일기』 등을 보기도 하였다. 더불어 정조가 내려준 청조의 『고금도서집성』을 교열하기도 했다.²⁰⁾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약용은 유년시절에는 성호학과 즉 성호 이익이 문호를 이룬 근기남인의 중농학과를 통해 기초를 형성하였고, 과거에 급제한 이후에는 노론 북학파의 북학사상을 적극 수용하는 전진적, 진보적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²¹⁾

순조가 즉위하면서 1801년 다산은 기호남인에 대한 노론 측의 정치적 공세인 신유사옥에 휘말려 천주교에 입교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유배를 가게 된다. 특히 18년간의 유배생활은 그가 현실문제를 철저히 인식하고 체계적인 개혁안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개혁안은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다산의 역사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 시기 동안 그는 역사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강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게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강역고』가 이 유배기간을 거치며 저술된 것이다.

사실 다산의 역사지리에 대한 관심은 청년시절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28세 되던 1789년(정조 13)에 시행된 내각친시의 지리책에 대한 시험에 그는 합격하였는데, 그 시제와 답변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시제 가운데 ‘발해의 옛 땅이 받은 거란으로 들어갔으니, 고려왕조의 통일은 여한이 없느냐’²²⁾고 하여 만주와 발해사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한 다산의 대책은 ‘피차간의 강역 한계는 아주 세밀하게 밝히고 고금의 연혁된 제도는 그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며, 산은 그 산맥(山脈)들을 기록하고 물은 원류(源流)와 분파(分派) 등을 구별하며, 옛 사적 중에 정벌(征伐)이나 공수(攻守)에 관한 사실들은 무엇보다도 자세하게 기록하자’²³⁾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1년 뒤인 1800년(정조 24)에 다산은 『문헌비고』의 오류를 지적한 『문헌비고간오』를 저술하였는데, 이는 『문헌비고』의 「여지고」에 대한 비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지리 서술에 대한 견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었다는 점²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산은 다시 11년 후 유배시절인 1811년(순조 11)에 『강역고』를 1차로 완성하고, 유배가 끝난 후 1833년(순조 33)에 속고를 첨부하여 『강역고』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최종 완성을 이룬 것이었다.

2. 『疆域考』에 대한 分析

『강역고』는 『아방강역고』라고도 하는데, 다산은 『아방강역고』란 서명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

19) 북학사상에 대해서는 지두환, 1987, 「조선후기 실학연구의 문제점과 방향」, 『태동고전연구』3, 한림대부설 태동고전연구소 ; 정옥자, 1993,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 유봉학, 1995,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가 참고가 된다.

20) 강재연, 1981, 『한국의 개화사상』, 비봉출판사, p.86.

21) 정옥자, 1990, 「실학과 근대의식」,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p.199.

22) 정약용, 『與猶堂全書』제1집 권8, 地理策. “渤海舊疆 半入契丹 則麗祖統一 能無餘恨”

23) 위의 책. “疆域彼此之分 旌其絲髮 沿革古今之制 詳其實實 於山則紀其脈絡 於水則別其源派 於古事則凡戰伐攻守之跡 最宜該載”

24) 한영우, 1989, 앞의 책, p.363.

『강역고(疆域考)』를 통해 본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

리나라'의 강역을 중심에 두고 역사를 고찰하였다. 이 때의 영토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까지 그가 살아간 조선의 영토가 기준이었다. 즉, 압록강, 두만강 이남의 한반도 지역이 주된 서술대상 범위였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곳은 조선시기의 중심지역인 한강유역의 역사변화였고, 만주는 주제와 관련이 있을 때에만 관심을 두는 대상이었다.²⁵⁾ 이는 오늘날 한국고대사를 언급할 때 한강을 둘러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각축을 강조하는 것과 유사하여 일면 흥미를 끈다. 『강역고』가 주로 지리고증에 치중한 것은 지리(地理)가 곧 지리(地利), 즉 이용후생과 부국강병의 기초라는 점을 의식한 것과 관련된다.

다산이 『강역고』를 편찬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민족의 기원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동이(東夷)를 우리 민족의 주류로 보고, 여기에 예맥과 중국 진나라의 유민이 일부 유입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때 동이에는 조선족과 한족이 포함되는데, 북쪽은 조선족에 의해 조선이 발전했고, 남쪽은 한족에 의해 삼한이 융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정약용은 기자조선이 성립되던 시기에 우리가 문명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생각했으나, 기자조선의 종족을 중국계통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는 다산이 그의 주역 주석서인 『주역사전』에서 명이괘의 5번째 효 65의 효사 ‘기자명이이정(箕子明夷利貞)’을 설명하면서, “기자는 홍범(洪範)과 같은 선왕의 도를 품었으나 이미 안으로 중국을 밝힐 수 없었다. 이에 동쪽인 조선으로 가서 동이의 땅에서 이 도를 밝히니, 그 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 밝음이 쉽다 없었다. 이는 성인의 고심으로 공자께서 구이(九夷)에 거하고자 했다는 것도 이러한 뜻이다”²⁶⁾라고 하였던 데에서도 드러난다. 즉, 그는 기자가 개인적으로 와서 동이의 나라인 조선의 군주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기자 이전의 우리의 종족을 동이라고 본 것이었다.²⁷⁾

한편 다산 이전까지 한족은 대체로 중국계로 이해되었다. 『삼국유사』에서부터 토대가 형성되어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마한은 기자의 후예로, 진한은 진인동주자로, 변한은 시조를 알 수 없는 종족으로 간주된 것이다. 다산은 이를 비판하고, 한은 ‘크다’라는 뜻의 토착어로서 열수(한강) 이남 사람들이 그 추호를 가리켜 한이라고 부른데서 한국이라는 명칭이 유래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족은 한강 이남의 토착족이다. 또 예맥에 대해서는 북적(北狄)의 일종으로 외부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이들이 점차 우리에게 동화되어 부여, 고구려가 형성되었다고 보았고,²⁸⁾ 진인동주자(秦人同走者) 즉 중국 진나라의 유민이 진한에 일부 들어온 것으로 상정하였으나 이들은 당시 마한에 신속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다산은 한국사를 이끌어 온 주종족을 동이로 표현하고, 이들을 크게 북방의 조선족과 남방의 한족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두 종족에 대해서 커다란 긍지를 갖고 있었다.

25) 김현숙, 2011, 「실학자들의 고구려사·백제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62, 한국고대사학회, p.118.

26) 정약용, 『與猶堂全書』제2집 권40, 周易四箋. “箕子抱先王之道如洪範 既不能內明中國 於是東出朝鮮 明此道於夷邦 其道不絕 則其明不息 此聖人之苦心也 孔子之欲居九夷 亦此意也”

27) 조성을, 1992, 앞의 논문, p.68.

28) 이와 관련하여 홍성구는 정약용이 예맥과 같은 만주 제종족을 자국사 체계 속으로 수렴함으로써 종족적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평가하였다(홍성구, 2010, '만주역사를 바라보는 한국적 시각의 한 모색 : 허목과 정약용의 만주 제종족 인식을 단서로', 『역사와담론』55, 호서사학회, pp.209~211.)

둘째로 한반도가 우리 영토였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는 앞선 시기에 제기된 바 있는 허구적인 북벌론, 고토 회복론에 대해 반대하였다.²⁹⁾ 또 당시 국내에서 대두되었던 고조선의 강역과 고조선의 수도인 평양의 위치를 만주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 한사군의 위치를 만주로 설정하는 입장, 고구려 중심의 일원적 역사인식, 발해사를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의 주류로 편입하려는 생각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이처럼 만주를 우리 역사에 넣으려는 당대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그는 『강역고』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였다. 다산이 보기에 북벌론은 실현 불가능한 것임에도 그 명분을 통해 백성을 통제하고 사회개혁을 억제하는 보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현실적 개혁론자로 내정개혁을 통해 조선을 부국강병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³⁰⁾ 더욱이 국외에서는 청나라의 『만주원류고』 등에서 역으로 우리 역사를 만주족(여진족)의 역사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조정에서 폐사군 복설 논의가 있었고, 정약용 자신이 폐사군론을 작성하여 폐사군 복설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다산은 자신이 처한 조선시대의 입장에서 얻어진 영토의식을 역사 속에 투영하면서 『강역고』를 저술함으로써 상고 이래 한반도는 우리 강역이었음을 주장한 것이다.³¹⁾

셋째로 기존 역사지리서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올바르게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다산은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 『문헌비고』 등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강역고』 저술을 통해 수정하고자 하였다.³²⁾ 그는 『강역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삼국사기』와 『동국여지승람』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실 이는 단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산의 역사지리 인식이 『강역고』를 통해 완성되기까지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1789년 내각친시의 지리책 시험 경험, 1800년 『문헌비고간오』 저술이 있었던 것이다. 다산은 『강역고』에서 광범한 자료수집, 치밀한 고증, 합리적 해석 등을 통해 그 이전 사서들이 범하고 있던 오류들을 하나하나 수정해 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강역고』는 더욱더 객관성과 합리성을 떨 수 있었다.

이어 『강역고』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책에서는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기까지의 고대국가의 강역과 역사를 고증하였다. 기자조선, 한사군, 삼한(마한·진한·변진), 옥저·동예·말갈·발해 등에 대해서 그 위치와 역사를 다룬 것이다. 더불어 고구려와 백제의 수도의 위치, 패수와 백산의 위치를 개별항목으로 설정하여 고증하였다. 고구려와 관련해서는 졸본, 국내, 환도를, 백제와 관련해서는 위례, 한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그 위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패수와 백산의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던 다산의 대책에서도 드러났듯이 강역과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다가가고 있었다. 또한 다산은 『강역고』에서 조선시대 8도의 연혁 및 서북로의 연혁을 고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선 당시의 행정구역을 토대로 지방단위의 역사

29) 조성을, 1994, 「정약용」,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과비평사, p.325.

30) 한영우, 1989, 앞의 책, p.369.

31) 조성을은 다산이 『강역고』를 통해 조선의 영토를 확정지으려는 한 것은 민족과 민족국가를 형성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조성을, 1994, 위의 책, p.67).

32) 조성을, 1992, 앞의 논문, p.67.

적 변천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강역고』는 고증학적 비판이 엄밀히 가해진 역사지리서로 한국사 연구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강역고』의 체제를 보면 먼저 어느 정도 연대순으로 항목을 배열하고자 하여 일정부분 통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통사체제를 띠고 있지는 않기에 항목의 구분 없이 저술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³³⁾ 다음으로 각 항목의 서술은 결론을 서두에 언급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안설(按說)로서 비판·검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역고』 중 마한고에서는 먼저 “마한은 지금의 익산이니, 그 총왕(總王)이 도읍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³⁴⁾라 하고, 김부식지리지(삼국사기 지리지), 정인지지리지(고려사 지리지) 같은 자료를 제시하여 이들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특히 사료의 비판에 토대를 두고 저자의 견해를 함의적으로 서술하는 과학적인 학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강역고』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자료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고, 이전의 역사지리서와는 달리 도덕주의적 해석방법이나 정통론에 입각한 서술원칙에서 점차 탈피하면서 역사의 발전을 자연환경과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 초보적이지만 언어학적 방법도 활용하였다. 『강역고』 중 변진고에서 변진에 대해 설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현재 『강역고』는 목차에 드러나는 차이를 가지고 구분하면 두 가지 종류가 남아있다. 하나는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소장중인 1811년 1차 완성된 초고본 형태의 연대본이다. 다른 하나는 여유당전서에 실려있는 1833년 수정·보완된 증보본 형태의 여유당전서본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연대본 『강역고』의 목차

권 호	차 례
1권	조선고(朝鮮考)-기자(箕子), 사군총고(四郡總考), 낙랑고(樂浪考), 현도고(玄菟考)
2권	임둔고(臨屯考), 진번고(眞番考), 낙랑별고(樂浪別考)-춘천(春川), 대방고(帶方考)
3권	삼한총고(三韓總考), 마한고(馬韓考), 진한고(辰韓考), 변진고(弁辰考)
4권	변진별고(弁辰別考)-가라고(迦羅考), 옥저고(沃沮考)
5권	예맥고(濊貊考), 예맥별고(濊貊別考)-강릉(江陵), 말갈고(靺鞨考)
6권	발해고(渤海考)
7권	여진고(女眞考)-구성(九城), 거란고(契丹考), 몽고고(蒙古考)
8권	졸본고(卒本考)-부여(夫餘), 국내고(國內考), 환도고(丸都考)-안시(安市), 위례고(慰禮考)
9권	한성고(漢城考), 팔도연혁총서상(八道沿革總叙上)
10권	팔도연혁총서하(八道沿革總叙下), 패수변(溟水辯), 백산보(白山譜)

연대본은 책으로 되어 있는데, 1·2·3권은 제1책에, 4·5·6권은 제2책에, 8·9·10권은 제3책에 실려

33) 채미하, 2011, 「실학자들의 신라사 연구 방법과 그 해석」, 『한국고대사연구』62, 한국고대사학회, p.145.

34) 정약용, 『與猶堂全書』제6집 권1, 疆域考, 馬韓考. “馬韓者 今之益山郡 是其總王之所都也”

있다. 7권의 경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목차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1822년에 다산이 지은 자찬묘지명에 “『강역고』 10권”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현존 연대본은 초고본에서 7권의 부분을 빼고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여유당전서본 『강역고』의 목차

권 호	차 례
1권	조선고(朝鮮考)-기자(箕子), 사군총고(四郡總考), 낙랑고(樂浪考), 별유고(別有考), 현도고(玄菟考), 임둔고(臨屯考), 진번고(眞番考), 낙랑별고(樂浪別考)-춘천(春川), 대방고(帶方考), 삼한총고(三韓總考), 마한고(馬韓考), 진한고(辰韓考), 변진고(弁辰考)
2권	변진별고(弁辰別考)-가라고(迦羅考), 옥저고(沃沮考), 예맥고(濊貊考), 예맥별고(濊貊別考)-강릉(江陵), 말갈고(靺鞨考), 발해고(渤海考)
3권	졸본고(卒本考)-부여(夫餘), 국내고(國內考), 환도고(丸都考)-안시(安市), 위례고(慰禮考), 한성고(漢城考), 팔도연혁총서상·하(八道沿革總叙上·下), 패수변(溟水辯), 백산보(白山譜)
4권	발해속고(渤海續考), 북로연혁속(北路沿革續), 서북로연혁속(西北路沿革續), 부 구성연고(附 九城連考)

여유당전서본은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4권에 발해속고, 북로연혁속, 서북로연혁속, 부 구성연고가 증보되었다. 또 여유당전서본에도 초고본 7권에 해당하는 여진고, 거란고, 몽고고가 누락되어 있다. 이는 다산 자신의 의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³⁵⁾ 증보를 통해 북로연혁속과 서북로연혁속을 저술하였는데, 이는 함경도 지역과 평안도 지역의 역사적 변천을 살핀 것으로 여기에는 여진, 거란, 몽고의 해당지역 침략과 점령이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여진고, 거란고, 몽고고가 여유당전서본에는 빠진 것이다.

『강역고』에서 드러나는 점은 고대사를 이원적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고대사를 열수(한강)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북쪽은 기자조선에서 사군(한군현)을 거쳐 고구려, 발해로 이어진다고 인식했고, 남쪽은 한국(삼한)에서 개별국가가 발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다산은 단군조선을 부정하고 기자조선을 강조하고 있다. 다산은 『강역고』 중 조선고에서 “단군이 평양에 도읍하였다는 것은 믿을만한 문헌자료가 없는데, 하물며 그 이름이 왕검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³⁶⁾라 하였다. 즉 왕검이라는 말은 험한 곳이라는 뜻을 가진 평양의 별칭인데, 이를 왕검으로 바꿔 단군왕검이라 한 것을 잘못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사료비판에 의거해, 단군조선의 실재를 믿지 않았다. 기자조선을 강조한 것은 앞서 살펴본 기자가 전했다는 『상서』 홍범구주를 정약용이 요순 삼대의 정치이념으로 보고, 자신의 개혁사상의 근거로 삼은 것과 관련이 있다.

35) 조성을, 1992, 앞의 논문, p.65.

36) 정약용, 『與猶堂全書』 제6집 권1, 疆域考, 朝鮮考. “檀君之都於平壤 亦無信文 況姓名之爲王儉 有誰知之”

『강역고(疆域考)』를 통해 본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

더불어 『강역고』를 통해 삼한의 위치 고증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은 주목할 만하다. 다산은 삼한 가운데 마한은 경기 남부, 충청, 전라도 지역이고, 진한은 경상도 지역, 변진은 경상도 가운데 김해 등지로 그 위치를 고증하였다. 이를 통해 삼한의 역사가 복원되고, 한국사의 역사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획기적 의미를 지닌다. 또 삼한과 삼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마한은 백제로, 변진은 가야로, 진한은 신라로 각각 연결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한국사를 남북의 병행구조로 본 한백겸의 입장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다산이 『강역고』를 통해 남인계에서 일반적 인식이었던 삼한정통론을 문헌고증적 입장으로 극복하여 기자조선과 마한과의 연결성을 부정하고 병렬적으로 인식한 점은 학문적 입장에서 당파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³⁷⁾ 이에 정약용은 『강역고』의 지리고증을 통하여 상고시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고, 상고시대의 역사체계를 재구성하였다³⁸⁾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다산은 『강역고』에서 중국 측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강역을 고증하였으며, 토지의 비옥도나 기후, 교통조건 등 자연 환경과 기술 발전의 정도를 따져서 국가의 발전 수준을 논하였다. 역사의 원동력을 물질적 측면에서 해석한 것이다. 다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삼국 이후 고려와 조선이 성립되면서 점차 우리 영토가 명확해졌음을 강조하였다. 『강역고』에 나타난 이러한 그의 역사인식들은 분명 독창적이고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다. 이처럼 『강역고』는 종족적 요소와 영토를 중시하는 현실적인 것으로, 분량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저자가 오랜 기간 연구를 거듭하여 완성한 만년의 저술로서 독창적 견해가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산의 대표적 역사지리 연구서로 볼 수 있다.

II. 丁若鏞의 百濟史 認識

1. 百濟史 認識에 있어서의 特徵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도시개발과정에서 훼손·멸실된 한양도성(서울성곽)이 복원되어 2015년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단순한 복원을 넘어 미래세대, 세계인의 문화 향유권까지 고려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등재계획에는 서울 최초의 도성이었던 백제 위례성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다산은 백제론, 고구려론과 『강역고』 중 예맥별고, 위례고, 한성고 등을 통해 위례성을 비롯한 백제사의 전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대해 오늘날 우리는 조선시대와의 연관성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조선시대를 살아간 정약용은 그보다 앞선 고대로부터의 역사지리를 언급하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산의 백제사 인식과 관련된 연구성과는 아직 그리 많지 않다. 최근 ‘실학자들의 한국 고대사 인식’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가 개최되면서 그 속에서 다산의 백제사 인식이 부분적으로

37) 박광용, 1990, 「한국인의 역사인식」,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pp.499~500.

38) 조광, 2010, 앞의 책, p.50.

다루어지거나,³⁹⁾ ‘정약용의 백제사 연구’라는 제목으로 다산이 조정에 있었을 때와 강진유배기의 백제사 연구가 소개되었을 뿐이다.⁴⁰⁾ 이에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강역고』에 대한 검토에 이어, 다산의 백제사 인식에 대해 좀 더 접근하고자 한다.

다산이 지녔던 백제사 인식에 있어서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시조와 관련된 문제, 즉 시조전승⁴¹⁾을 들 수 있다. 이는 『강역고』 중 예맥별고에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다.

「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의 시조 온조왕은 곧 우태의 아들이요, 우태는 북부여왕 해부루의 서손이다. 온조왕은 한나라 성제 홍가3년에 위례성에 나라를 세웠다⁴²⁾

백제의 시조전승⁴³⁾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 비류와 온조 형제의 아버지가 주몽이라는 설과 우태라는 설이 함께 실려 있어 이후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산은 비류·온조의 부는 우태라는 주장을 지지하고, 백제의 지배층을 부여 계통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다산은 조선후기에 철저한 문헌고증에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백제의 시조전승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연구성과는 근현대 문헌고증 역사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⁴⁴⁾ 일례로 일제시대와 해방 후 한국 고대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이병도가 백제의 시조전승에 대해 국내 및 중국·일본 문헌을 통해 고증하려 했던 점⁴⁵⁾이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해결하려고 한 강역문제를 “역사지리(Historical Geography)상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⁴⁶⁾은 다산의 영향이 면면히 오늘날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백제의 온조가 처음 도읍한 위례성의 위치⁴⁷⁾에 대한 주장이다. 백제의 수도에 대한 본격

39) 학술회의 결과가 2011년 『한국고대사연구』62에 실렸고(조인성, 2011, 「실학자들의 한국 고대사 연구의 의의 -김정희의 진흥왕 순수비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62, 한국고대사학회 ; 송호정, 2011, 「실학자들의 역사지리관과 고조선 한사군 연구」, 『한국고대사연구』62, 한국고대사학회 ; 문창로, 2011,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삼한연구」, 『한국고대사연구』62, 한국고대사학회 ; 김현숙, 2011, 「실학자들의 고구려사·백제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62, 한국고대사학회 ; 채미하, 2011, 「실학자들의 신라사 연구 방법과 그 해석」, 『한국고대사연구』62, 한국고대사학회 ; 김종복, 2011,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발해사 연구성과」, 『한국고대사연구』62, 한국고대사학회), 2012년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편, 2012, 『실학자들의 한국 고대사 인식』, 경인문화사).

40) 조성을, 2009, 「정약용의 백제사 연구」, 『한국사시민강좌』44, 일조각.

41) 연구자에 따라 건국신화, 건국설화, 시조전승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建國에 대한 서술 속에 담겨 있는 始祖에 대한 認識과 그 歷史像을 가리켜 始祖傳承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42) 정약용, 『與猶堂全書』제6집 권2, 疆域考, 濊貊別考. “據百濟本紀 百濟始祖溫祚王 卽優台之子 而優台者 北夫餘王解夫婁之庶孫也 溫祚王 以漢成帝鴻嘉三年 立國於慰禮城”

43) 백제의 시조전승에 대한 최근의 연구사 정리로는 문창로, 「백제 시조전승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학논총』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pp.51~55가 참조가 된다.

44) 한영우, 2002,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p.209.

45) 이병도는 백제의 시조전승과 관련하여 溫祚·沸流·都慕·仇台를 각각 언급한 바 있다(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pp.467-481).

46) 이병도, 1976, 위의 책, p.100.

47) 위례성을 포함한 백제의 도성 위치에 대한 최근의 연구사 정리로는 김기섭, 2011, 「백제 한성도읍기 연구

『강역고(疆域考)』를 통해 본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

적인 검토는 다산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산은 『강역고』 중 위례고에서 이를 언급했다.

한양 고현은 지금 경성 북쪽 한양동이 그곳이다. 혜화문 밖 10리 못 미쳐 옛 성의 남은 흔적이 있는데, 여기 사는 백성들이 한양의 고현이라고 하니 어찌 옛 위례성 터가 아니겠는가 … 온조의 옛 궁성은 본래 광주고읍에 있어 궁촌이라는 이름을 남겼고, 여기 사는 백성들은 참외를 심어 생업으로 삼았다. 여기가 하남 위례성이다.⁴⁸⁾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산은 온조가 처음 도읍한 위례는 서울의 혜화문 바깥 10리 지점이고, 온조 13년에 이도한 하남위례성은 광주고읍이라고 고증하였다.⁴⁹⁾ 이는 지금까지 직산을 위례로 본 『삼국유사』, 『고려사』, 『동국통감』, 『여지승람』 등의 위치비정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다산은 이전까지의 설에 따르면 백제는 직산에 도읍하였다가 북쪽인 한성으로 천도하고, 다시 웅진으로 재천한 것이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간 직산을 위례로 본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산에 의하면 직산이 한성에서 남쪽으로 웅진까지 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문주(文周)가 여기에 잠시 머무르면서 북쪽으로 옛 도읍의 소식을 듣고, 남쪽으로 새 도읍의 일을 처리했음이 이치에 맞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다산은 『삼국사기』, 『고려사』, 『여지승람』 등에서 한성을 고구려 땅으로 보고, 온조왕이 이를 빼앗아 축성했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조왕 때는 고구려의 유리왕 때이고, 이 당시 고구려는 만주의 졸본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한성을 영토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약용은 역시 위례고에서 언어학적 접근을 통해 위례성의 어원을 세밀히 밝혔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그것을 위례(慰禮)라 함은 우리말(方言)에 넓게 성곽을 사변으로 두르는 것을 위리(圍哩)라고 하는데, 위례(慰禮)와 위리(圍哩)의 발음이 서로 비슷하다. 성책을 세우고 흙을 쌓아 넓게 성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례(慰禮)라고 부른다.⁵⁰⁾

다산은 위례를 ‘울(圍哩)’, ‘우리(柵)’의 뜻으로 해석하면서 백제가 수도에 성책을 세우고 흙을 쌓아 성곽을 만든 역사적 사실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았다.⁵¹⁾ 실로 그의 해석은 오늘날 최초의 국가형태로 거론되는 성읍국가(城邑國家)의 개념과도 잘 부합된다. 즉 “나지막한 구릉 위에 목책을

동향과 과제』, 『백제문화』44,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p.18-24가 있다.

48) 정약용, 『여유당전서』제6집 권3, 疆域考, 慰禮考. “鏞案漢陽古縣 卽今京城北坊漢陽洞是也 惠化門外未十里 有古城遺痕 居民指之爲漢陽古縣者 豈非慰禮城之古址乎 … 溫祚舊宮 本在廣州之古邑 謂之宮村居民 業種甘瓜 此則河南之慰禮也”

49) 지금도 위례성, 하남위례성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문헌사학과 고고학 분야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적으로 백제의 첫 도읍지는 한강 이북의 중랑천일대로, 두 번째 도읍지는 한강 이남의 몽촌토성 또는 풍납토성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논의가 필요하다(박현숙, 2006, '백제의 성립과 발전', 『한국고대사입문』2, 신서원, pp.93-97 ; 조성을, 2007, '조선 중·후기 백제사 인식',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1 백제사총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p.236).

50) 앞의 책. “其謂之慰禮者 方言凡匡郭之四圍者 謂之圍哩 慰禮圍哩聲相近也 樹柵築土以作匡郭 故謂之慰禮也”

51) 백남운도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위례성의 위례는 울·울타리와 통하며, 따라서 위례성은 목책으로 둘러싸인 부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백남운, 1933, 『조선사회경제사』, 개조사, p.249).

세우거나 토성을 쌓고 살면서 우리(柵)·성(城) 밖의 평야지대에서 농경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지배해 나가는 정도의 작은 나라⁵²⁾는 성읍국가(城邑國家)라 부르기에 알맞은 존재인 것이다. 이후 역사에서는 위례성을 기반으로 한 온조집단이 미추홀에 자리잡았던 비류집단과 함께 주가 되어 이웃의 소국들을 통합하면서 백제 연맹왕국이 이루어졌다.⁵³⁾

셋째로 한성 함락 이후 한강 유역의 영유와 관련하여서도 다산은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하였다. 그에 의하면 장수왕의 한성공격 이후에도 한강이남지역은 여전히 백제의 영역이었으며, 고구려는 한강이북지역까지만 차지하였다. 다산은 『강역고』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정리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개로왕 말년에 이르러 고구려가 성을 불태우고 왕을 죽였다. 백제는 남쪽으로 돌아가고 한성은 백제의 옛 서울이 되었다. … 그 후 50여 년이 지나 한성과 한강 이북의 주군(州郡)이 모두 백제 소유가 되었다. … 무령왕 이후 30여 년간은 한성이 역사책에 보이지 않으니, 그 사이에 고구려가 잠시 차지했다가 도로 잃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 대저 한강 남북의 여러 땅이 삼국 말기에는 바둑판이 되어, 아침에는 얻었다가 저녁에 잃고 동쪽을 잃고 서쪽을 빼앗기는 형국이다. … 『북사』에 기록된 것은 고구려 사람이 잠시 이 땅을 얻었을 때 중국에 떠벌려 말해서 3경의 이름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⁵⁴⁾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산은 한강 유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을 가급적 부인하고, 한성에서 수도를 옮긴 뒤에도 여전히 한강 유역은 백제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지역으로 보았다. 또 삼국 말기의 바둑판과도 같은 치열한 한강 유역 쟁탈전으로 인해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고 빠진 부분이 많다고 파악하였다. 다산은 고구려가 실제로 일찍부터 와서 도읍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글을 오래 보존하지 못했으니 이를 믿을 수 없으며, 역시 이는 백제의 역사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약용의 이러한 견해는 합리적이어서 이후 한진서의 『해동역사』 지리고, 김정호의 『대동지지』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⁵⁵⁾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장지연은 “원고를 쓸 때 정약용은 아직 일본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옛 기록의 남평양설을 사실이 아니라 했으나, 지금 일본 역사를 보면 한성이 평양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또 백제가 이를 회복했다가 이내 잃은 자취가 뚜렷하다”라고 하며 반대의 견해를 펴기도 했다.⁵⁶⁾ 한강유역 영유와 관련된 이러한 다산의 견해는 오늘날에는 백제의 한강유역 지속보유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⁵⁷⁾

52) 이기백, 1976, 『한국사신론(개정판)』, 일조각, p.25.
 53) 김두진, 2008, '백제의 기원과 건국', 『한성백제사』2 건국과 성장,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p.66.
 54) 정약용, 『與猶堂全書』제6집 권3, 疆域考, 漢城考. “至蓋鹵王末年 句麗燒城殺王 而百濟南遷 漢城爲百濟之舊京 … 其後五十餘年 漢城及漢北州郡 猶爲百濟之物 … 武寧王既卒後三十餘年 漢城之事 不見史冊 或者其間 句麗暫得漢城 旋復失之 … 大抵漢南北諸地 其在三國之末 便作弈碁之場 朝得暮失 東攘西奪 … 至於北史所記 或句麗之人 於其暫得之時 夸說於中國 遂有三京之名”
 55) 조성을, 2007, 앞의 논문, p.220.
 56) 정약용 지음, 이민수 옮김, 1995, 『아방강역고』, 범우사, p.195.
 57) 다음 연구들은 다산의 견해에 동조하여, 백제가 웅진시대에도 한강유역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았다(천관우, 1978, '삼한의 국가형성' 하, 『한국학보』3, 일지사, p.115 ; 양기석, 1980, '웅진시대의 백제지배층연구', 『사학지』14, 단국대학교 사학회, pp.22~23 ; 성주탁·차용걸, 1981, '백제의식고', 『백제연구』1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p.80 ; 박찬규, 1991, '백제 웅진초기 북경문제', 『사학지』24, 단국대학교 사학회,

『강역고(疆域考)』를 통해 본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

넷째로 백제의 멸망원인에 대해서도 다산은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합리적 유교사관을 강조한 『삼국사기』 이래 주로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백제의 멸망을 설명하던 데서 벗어났다. 다산은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 천도(遷都)의 실책에서 멸망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백제론에서

백제(百濟)는 삼국(三國) 중에서 제일 강성했지만 가장 먼저 망한 나라이다. ... 어떤 사람은 “그 풍속이 교만하고 간사하여 이웃 나라와 화목하지 않았던 까닭으로 쉽사리 망했다”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백제의 단점일 뿐, 이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다. ... 백제가 처음에는 위례(慰禮)에 도움을 징했는데 ... 그야말로 천역적인 요새라 할 수 있는 땅이었다. ... 부여는 넓은 들의 북편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1백 리 안에 의지할 만한 성벽이나 정장(亭障)이 없고 엄폐할 수 있는 울타리가 없었다. ... 마침내 신라가 배후를 공격할 수가 있었고 도성(都城)이 함락되었다.⁵⁸⁾

라 하여 백제가 삼국 중 가장 강성하였으면서도 가장 먼저 멸망한 원인을 분명히 밝혔다. 백제가 천부금탕(天府金湯)의 땅 즉 천혜의 조건을 가진 요새인 위례성을 버리고, 공주와 부여로 수도를 옮긴 것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는 다산이 고구려가 산곡 지역에서 평야가 넓고 물산이 풍부한 평양으로 도움을 옮기면서 정신력이 해이해져서 쇠약해졌다고 해석한 시각과 일치한다.⁵⁹⁾ 이처럼 백제론-고구려론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산은 명분론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서 지리적 요인, 객관적 힘 등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⁶⁰⁾

2. 馬韓과 百濟와의 關係 考察

앞서 다산이 지녔던 백제사 인식에 있어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데 이어, 여기서는 마한과 백제와의 관계 고찰을 통해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에 한걸음 더 접근하고자 한다. 다산은 고대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해석에 있어 물질적·제도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마한과 백제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하였다. 한강 이남의 남방사회가 독자적인 선진사회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마한과 백제가 서로 연계되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본 것이다. 우선 마한과 관련하여서, 그는 『강역고』의 삼한총고에서 한강 이남에서 형성된 마한의 자연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서북은 황폐하고 좁고, 관동은 험하고 좁다. 또 영남은 궁벽하고 멀며, 경기북쪽은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다. 그런데 열수(한강) 남쪽은 마한의 옛 땅으로서 기후가 온화하고 토지가 비옥하니, 이곳은 동국의 중국이다. 그런 까닭에 마한이 당시에 주인이 되었고 삼국의 패자가 되었다.⁶¹⁾

pp.64~66 ; 김영관, 2000, '백제의 웅진천도 배경과 한성경영', 『충북사학』11·12, 충북대학교 사학회, pp.86~89).

58) 정약용, 『與猶堂全書』제1집 권12, 百濟論. “百濟於三國最強 而其亡最先 ... 或曰其俗驕詐 不睦鄰國 故易亡 此皆百濟之所短 而其所由亡則非也 ... 百濟始都慰禮 ... 此所謂天府金湯之地也 ... 扶餘在大野之中 百里之內 亭壁無所依 藩籬無所蔽 ... 終使都城失守. 而新羅拊其背矣”

59) 고구려는 남쪽으로 압록강을, 백제는 남쪽으로 한강을 건넌 뒤 나라를 잃었으니, 이는 귀감으로 삼아야 할 우리나라의 전례이다(정약용, 『與猶堂全書』제1집 권12, 高句麗論. “句麗百濟南渡而失其國 此東邦之覆轍也”).

60) 조성을, 2004, 「실학자의 역대 수도·천도론」, 『한국사연구』127, 한국사연구회, pp.305~306.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약용은 삼한 중에서 마한이 최강국이었는데, 이는 한강 이남의 땅이 기후가 좋고 토질이 비옥한 데서 연유한다고 보았다. 농업사회에서 국부의 바탕은 농업이고, 높은 생산성은 기후 및 토질과 직접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견해는 타당하다. 또 다산은 기준(箕準)이 내려오기 전부터 마한이 존재했고(전마한), 기준이 마한왕이 된 것은 사실이나 당대에 한정되며(기준마한), 이후 다시 토착세력가가 왕이 되었으므로(후마한) 마한은 기씨(箕氏)의 나라가 아니라고 했다. 즉 마한을 셋으로 나누어보는 삼마한설(三馬韓說)의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마한의 강역에 대해서는 한강 이남의 경기·충청·전라도 지역으로 비정하고, 그 읍락을 통틀어 한국이라고 했으며 마한54국의 총왕을 통칭하여 진왕(辰王)이라 한다고 보았다. 즉 진왕은 한국(마한)의 총왕을 지칭하고, 마한을 구성하는 개별소국의 크기는 대략 현(縣)의 규모로 산정하였다. 마한총왕의 수도는 목지국으로, 전라북도 익산에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한을 고구려로 비정하였던 최치원의 설이 나왔던 연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기준이 남천할 때 그의 종족은 평양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후 위만을 거치고 낙랑군이 설치되면서, 이들은 한씨를 모성(冒姓)하면서 마한부(馬韓部)를 세우고 기씨의 제사를 모셨다. 이를 두고 서쪽지방 곧 평양(고구려)에 마한이라는 이름이 있게 된 까닭이라고 다산은 해석하였다. 이처럼 고구려 제부 가운데 마한일족이 있었는데, 그 뒤 고구려가 멸망하자 마한의 남은 일족이 발해에 투탁하였고, 이들은 발해가 쇠망하자 따로 나라를 세웠으니 이른바 정안국이 바로 그것이다. 즉 다산은 기준의 남천에 따른 잔여세력이 위만·낙랑군·고구려·발해·정안국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산이 틀렸다고 보는 사료도 곧바로 무시하지 않고, 그것이 갖는 의미, 그 사료가 나오게 된 배경 등을 치밀하게 고증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마한의 영토를 차지한 백제에 대해서는 삼국 가운데 최강최문(最強最文) 즉 가장 국력이 강하고 문화가 가장 앞섰다고 하였다.⁶²⁾ 백제를 가야와 신라보다 강하고 문물이 앞선 나라로 파악한 것이다. 이는 다산이 진한은 처음에는 마한에 신속되어 통제를 받다가 마한이 망한 뒤에 비로소 자립하였고, 신라가 자립한 뒤에도 일정기간 백제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본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북사』와 『수서』의 기록을 언급하며, 중국에 황제를 뵈러 갈 때 백제를 따라 가는 등 초기의 신라가 백제에 부용(附庸)하였음을 밝혔다. 또 다산은 백제에 비해 초반에 미약했던 신라의 모습을 진한고를 통해 드러냈다. “신라가 나라를 세운 직후에는 아직 신라(新羅)라는 국명(國名)도 없었고, 왕호(王號)도 칭하지 못하였으니 단지 군소 연맹국가의 장(長)이었을 뿐이었다. 후세인 6세기 초의 지증왕 때에 이르러 비로써 신라라 일컬고 처음으로 왕이라고 일컬었다”라는 것이다. 나아가 가야는 바닷가에 위치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중국과 조공을 통한 교역에서 신라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보았다. 즉 가야와 신라라는 양자의 형세는 가야가 주인이 되고 신라가 부용이 되었다고 추론하였다.

61) 정약용, 『與猶堂全書』 제6집 권1, 疆域考, 三韓總考. “我邦之地 西北荒寒 東道險窄 嶺南僻遠 京畿北邑 亦土瘠民貧 唯洌水以南 馬韓故地 風氣溫和 土壤肥沃 此東國之中國也 故馬韓當時 得主霸於三國也”
 62) 정약용, 『與猶堂全書』 제6집 권2, 疆域考, 弁辰別考. “三韓之中 百濟最強最文”

『강역고(疆域考)』를 통해 본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

그리고 정약용은 합리적인 관점에 서서 수로왕과 석탈해의 출생에 관한 난생설화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가야의 수로와 신라의 석탈해는 본래 서한 계통 즉 마한사람으로 보아 진·변한 지배층의 연원이 모두 마한에서 비롯되었다는 독창적인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견해에 따르면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마한이 삼한 중 가장 강력하고, 이러한 마한을 이어받은 백제는 자연스럽게 가야나 신라보다 더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한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자연조건 상의 우위를 강조한 것으로, 다산이 백제의 벼농사를 부각시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다산은 자연환경이라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백제의 발전을 설명하였던 것이다. 또 다산은 한양을 백제가 처음 개척하였으며, 백제에 있어 근본의 땅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강유역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정약용은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도, 다산 이전까지 주로 도덕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데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조선 전기 이래 거의 지속적으로 백제는 학자들로부터 그다지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기자와 마한을 정통으로 보는 입장이 조선시대를 통해 강화되었기 때문에, 백제가 정통국가인 마한을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대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마한이 국토의 일부를 백제에 할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으로 마한을 멸망시켰다고 본 것이다. 다만 기자의 문화적 유물이 마한을 거쳐 백제로 전해졌다고 보았기에, 백제의 문화적 수준은 높았다고 평가하였다. 백제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다산과 동시대를 살아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한치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 다산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 기사를 비판적으로 활용하여 마한과 백제와의 관계를 추론하였다. 백제는 처음에 마한의 속국이었으나, 백제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마한을 병합한 것으로 그는 보았다. 즉 온조왕 27년에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켰다는 백제본기의 기사는 실제로는 마한 총왕의 나라가 망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한에 소속되었던 제국(諸國)은 잔존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더불어 『진서』동이열전에서 무제 태강 연간(280~289)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는 기록에 대하여서도, 그 주인공의 역사적 실체에 대하여 마한왕이 아닌 백제왕으로 보았다. 이는 정약용이 “삼한에 대한 시비는 중국사서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사서도 무조건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마한과 백제와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다산의 견해에 대해 신라 중심의 삼국사체계를 백제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파악한 바 있다.⁶³⁾ 또 마한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발전을 비롯하여 삼한의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사에서 한강 이남 지역을 더 중시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고구려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⁶⁴⁾ 하지만 이러한 평가들은 “삼국 중 어느 한 나라를 더 중심에 두고 역사를 바라보는가”하는 데에 지나

63) 한영우, 1989, 앞의 책, p.369.

64) 조성을, 1992, 앞의 논문, p.74.

치게 치중하여 다산에 대해 접근함으로써 생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산은 『강역고』를 통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물론이고, 어느 한 개별국가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그는 『강역고』를 저술하여 고대 삼국의 영토를 고증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삼국에 비해 관련 기록이 적은 조선, 낙랑·대방·임둔·현도 등 한군현, 마한·진한·변진 등 삼한, 가야, 옥저, 예맥, 발해 등에 대한 상세한 고증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다산의 발해 강역에 대한 연구는 그의 역사 관련 업적 중 하나이다. 그는 고대의 기록인 『당서』를 따라 발해의 중심지역을 백두산 동쪽지역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오늘날의 통설과 매우 가깝다. 그는 『강역고』의 발해고(1811)를 통해 발해의 지리를 고증하고, 발해속고(1833)를 저술해 발해 왕계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다산의 문제의식과 그 학문적 성과를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다산은 『강역고』를 통해 삼국을 비롯한 고대 제국(諸國)들의 역사를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총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⁶⁵⁾ 그는 그간 학자들이 주로 신라 위주의 역사인식을 했던 데서 벗어나, 실증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우리 역사와 문화의 독자성에 주목하며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유사 이래 우리 민족의 역사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다산의 백제사 인식에 대해서는 균형적 관점에서 백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객관적 시각을 통해 이를 확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고구려·신라·가야 등 고대국가에 대해서도 문헌 고증을 통해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III. 茶山의 史學史的 位相

1. 朝鮮後期 歷史地理學의 集大成

조선후기 학문분야의 새로운 동향 가운데 하나가 국학(國學)의 발전이며, 그 중에서도 역사학의 발달을 특징으로 꼽는다는 것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역사학에서는 역사지리학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사학, 백과전서학, 금석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인적 차원에서 연구를 하였던 전문가들이 탄생하였다. 이들은 평생동안 특정 분야를 연구하여 일정한 학문적 업적을 쌓았다. 이는 이전의 관적 차원에서의 인식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훨씬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바로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다산이 있었다.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듯이 김정희가 출현하여 금석학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한다면, 이보다 조금 앞서 19세기 초 역사지리학 분야에서는 다산에 의해 『강역고』가 저술되고 문헌비판에 기초한 치밀한 고증이 전개되면서, 이 시기의 역사지리학은 한국사의 역사적 실상에 한걸음 더 접근하게 되었다.

다산의 역사인식은 독창적인 면모를 갖는 것이지만, 그 바탕은 선배학자들의 연구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였다. 특히 다산은 이익의 역사인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있었다. 즉 역사의 동인과 관련하여 물리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여러 관계의 형세인 시세(時勢)가 강조되는 것은 이익과 정약용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다산은 이익과 달리 인간의 주체적 행위를 인식하고, 민중(民衆)에 보다

65) 이와 관련하여 『강역고』를 보충적(補充的)인 성향이 강한 역사지리서로 본 견해도 있다(강남욱, 2012, '정약용의 삼국영토인식 연구 -『아방강역고』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주목하였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단시간에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가 1789년에 28세의 나이로 지리책을 제시할 때만 하더라도 다산은 지리적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적 요인을 보다 중시하고 있었다. 이후 1799~1800년 무렵(38~39세 경)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예론에서 그는 민중의 힘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힘입어서 1800년 무렵(39세 경)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론과 고구려론을 거치면서 다산은 지리적 요인의 강조와 인간의 주체적 응전을 함께 중시하기에 이르렀다.⁶⁶⁾

한편 자연환경의 특색을 존중하는 태도는 허목·안정복·이중환 등 근기남인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기술이나 이용후생에 대한 관심은 유수원·홍대용·박지원·박제가 등 노론 북학파의 북학사상에서 보이던 것이었다. 다산은 인간적·학문적 교류를 통해 이들의 영향을 모두 받으면서, 이를 자신의 역사 이해에 적극적으로 응용하여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나갔다.

그리고 중국측 자료를 기본적으로 신뢰하면서 고증을 통해 우리의 역사지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구방법론은 복인계열인 한백겸 이래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것이었다. 즉 다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헌고증의 심화 경향은 중국에서 도입된 선진 경학과 고증학이라는 외래적 영향도 있었지만, 조선 내부에서 사단칠정론이나 이기론과 같은 학문적 논쟁을 겪으면서 조성된 전거주의적 학풍, 역사지리 연구를 통해 마련하였던 고증적 학풍의 자생적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국 고대사 연구에 관심을 보였던 세력으로는 소론계열도 있었다. 남구만, 이세구, 이종휘, 신경준, 유득공은 북방영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소론이 추구한 국가 중심의 경제적 사유와 국력 배양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⁶⁷⁾ 이에 대해서도 다산은 이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산은 이익, 안정복의 남인계열 뿐만 아니라 한백겸 등의 복인계열을 비롯해, 유득공, 박지원으로 이어지는 노론계열의 연구성과도 골고루 수렴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이종휘, 홍양호로 이어지는 소론계열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교류를 통해 형성된 다산의 역사지리 연구는 정밀성이나 논지의 독창성으로 인해 이전의 역사지리에 대한 연구를 총정리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⁶⁸⁾ 더욱이 그의 학문과 연구분야는 한 영역에 그치지 않고 실로 방대했기에 정약용을 가리켜 ‘실학의 집대성자’로 칭하며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정약용은 강역비정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역사의 중심 무대를 한반도로 인식하고자 하였다. 이 때의 영역관은 조선전기의 한반도 중심의 역사지리관과는 다르다. 이는 조선의 정체성 확인이라는 측면과 연관된다. 우리의 강토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영토의식, 조선 문명의 독자성은 어디에서 찾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다

66) 조성을, 2000, 「정약용의 역사 이론의 전개와 그 성격」, 『국사관논총』93, 국사편찬위원회, pp.234-236.

67) 박인호, 1993, 「남구만과 이세구의 역사지리연구」, 『역사학보』138, 역사학회, pp.34-36 ; 조성산, 2009, 「조선 후기 소론계의 고대사 연구와 중화주의의 변용」, 『역사학보』202, 역사학회, p.76.

68) 박인호, 2003, 앞의 책, p.418.

산에 의해 편찬된 『강역고』(1811년 1판 편찬, 1833년 수정·보완)는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후기 역사지리에 대한 연구가 집대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⁶⁹⁾

물론 정약용의 역사인식 및 연구방법론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 논리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일례로 “주나라의 문물제도는 진선진미하게 완성되었으나, 그 후세에 와서 파괴되었으므로 주나라 제도로의 복귀가 필요하다”⁷⁰⁾고 한 것은 다산의 역사인식에 성리학적 관점이 일정부분 남아있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도덕적 상고주의는 강력한 현실개혁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전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역사발전의 객관적 사실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또 앞서 살펴보았던 기예의 진보에 대한 견해와 이 도덕적 상고주의 사이에는 통일적 관점이 성립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앞선 시기의 학자들과 비교할 때, 다산의 단계에 이르러 사료이용의 다양성과 엄밀성이 강화되는 등 사료적 측면에서의 발전이 있었고, 중화 중심에서 민족 중심으로 서술방식이나 서술체제가 변화하는 등 기술적 측면의 진전도 있었으며, 인간의 주체적 행위에 주목하는 등 사상적 측면에서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다산의 역사인식은 시대정신에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당시 제기된 강역 문제에 대한 관심, 문헌고증에 의한 진실 탐구, 과학적 접근 시도 등을 통해 한국사를 독자적인 역사로 이끌어냈다.⁷¹⁾ 특히 다산의 백제사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정약용이 직접 역사에 대해 연구한 것은 그의 개혁론⁷²⁾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역사의 실용적 목적을 위해 그 자신이 직접 역사를 연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약용의 연구성과는 이후 외손 윤정기(1814~1879)⁷³⁾에게 이어졌다. 이는 윤정기가 『동환록』을 편찬한 목적이자 동기로 정약용이 저술한 『강역고』의 내용을 정리하여 쉽게 전달하고, 소략하게 다루었던 기사를 보유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데서도 알 수 있다. 더불어 동환록의 편찬체제를 사전식으로 편집한 점, 중요한 위치비정에 있어 정약용의 견해들을 따르고 있는 점에서도 다산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윤정기는 자신의 의견인 경우는 ‘안(按)’을 명기하고 있고, 정약용의 의견인 경우는 ‘다산공왈(茶山公曰)’을 덧붙여 구별하였다.

한편 『강역고』로 대표되는 다산의 역사에 대한 연구성과는 『증보문헌비고』의 역사지리비정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강역고』는 이후 한말 국가존망의 위기에서는 민족의식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⁷⁴⁾가 되었다. 한말일제 초기의 사학자인 장지연의 『대한강역고』(1903)는 그 영향을

69) 박인호, 2001, 앞의 책, p.168.

70) 정약용, 『興猶堂全書』제2집 권7, 論語古今註.

71) 정구복은 이러한 다산의 역사학을 중세사학과는 다른 근세사학으로 규정한 바 있다(정구복, 2007, 「조선 후기 사학사의 성격」, 『한국사학사학보』15, 한국사학사학회, pp.161~162).

72) 김태영은 정약용이 주장한 개혁론의 핵심을 객관적 기준의 정립과 인간의 주체적 실행으로 파악하였다(김태영, 2002, 「정약용」, 『한국사시민강좌』30, 일조각, p.172).

73) 윤정기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이용범, 1977, 「새금 윤정기의 역사인식」, 『현대사학의 제문제 -남계조좌호 박사화갑기념논총-』, 일조각 ; 박인호, 2003, 「『동환록』에 나타난 윤정기의 역사지리인식」,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회가 참고가 된다.

74) 금장태, 2005, 『다산 정약용 -유학과 서학의 창조적 종합자-』, 살림, p.137.

『강역고(疆域考)』를 통해 본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지연은 다산의 『강역고』에 일본측 사서에서 뽑은 자료를 가지고 삼한에 대한 사실을 보완하여 역사지리연구를 계승하였다. 이 책에서는 백두산정계비 이후 간도를 중국에 빼앗긴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고, 진홍왕의 황초령비 등 새 자료를 이용하여 고대사의 강역을 고증하였다. 하지만 『일본서기』를 신빙하여 임나일본부의 설치와 신공왕후의 신라침공을 인정하는 과실을 범하기도 하였다.

그 후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간 일제 치하에서 『강역고』로 상징되는 다산의 문헌고증에 바탕을 둔 역사지리 연구 흐름은 단절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제시대에도 문헌고증사학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사학을 통해 다산에 의해 이루어진 『강역고』의 연구성과들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흔히 이 시기 문헌고증사학은 독일 랑케사학의 영향을 언급하지만, 정약용 등의 영향도 컸던 것이다.

또한 오늘날에도 다산의 역사 이해는 그 가치가 인정되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학문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실증적 연구방법을 구사하여 전승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오늘날 한국사의 성립 요건이라 한다면,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의 연구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산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역사지리학은 전통시대 학문의 한 분야로 나타난 것이지만,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사의 학문적·정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2. 韓國史의 再認識

정약용은 당시 보편적으로 읽혀지던 『사략』을 근거가 없는 허구적 사실로 나열된 것이라 비판한 바 있으며, 『통감』에 대해서도 사실과 연대에 착오가 많으며, 내용상 전후관계가 맞지 않는 누문(陋文)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었다.⁷⁵⁾ 그의 이러한 비판은 기존 중국 중심의 성리학적 역사서의 역사인식과 서술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 동시에, 역사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해가 중요함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다산은 교육 및 과거제도에 있어 우리 역사 즉 한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산이 기이아(寄二兒)에서 “나라의 고사를 알지 못하고 선배들의 의논을 보지 못하였으면 그 학문이 고금을 관통했다 하여도 비천한 것”⁷⁶⁾이라고 하며, 자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역사에 대하여 기연아(寄淵兒)에서 『삼국사』(『삼국사기』), 『고려사』, 『국조보감』, 『여지승람』, 『징비록』, 『연려실기술』 및 중국정사 가운데 『동이전』을 보도록 하였다.⁷⁷⁾ 이 중 『국조보감』과 『연려실기술』은 당시 조선시기의 역사서이므로 그가 현대사를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동이전』을 공부해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사료적 가치에 주목하고 역사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한 것이다.

다산은 이처럼 본국사의 교육을 강조하는 동시에, 과거에서 중국사와 더불어 국사의 고강을 주

75) 정약용, 『與猶堂全書』제1집 권22, 史略評·通鑑節要評. “夫既得東西南北之中 則無所往而非中國 烏觀所謂東國哉”, “其他年月之訛舛 事實之乖繆 指不勝僂 可無論已”

76) 정약용, 『與猶堂全書』제1집 권21, 寄二兒. “不識國朝故事 不見先輩議論 雖其學貫穿今古 自是鹵莽”

77) 정약용, 『與猶堂全書』제1집 권21, 寄淵兒. “須取三國史 高麗史 國朝寶鑑 輿地勝覽 懲愆錄 燃藜述 李道甫所輯 及他東方文字 … 十七史東夷傳中 必抄採名跡 乃可用也”

장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사의 경우 『통감절요』와 『사략』 대신에 역대의 정사를 보고자 하였는데, 이는 다산이 요약본이 아닌 중국 정사 원본을 읽는 것을 중시하였음을 의미한다. 한국사의 경우는 『삼국사기』, 『고려사』, 『국조보감』(조선시대사) 등 우리 역사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한국사에 대해 재인식하고 이를 교육과 과거를 통해 반영하고자 하였던 것은 역대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었다.⁷⁸⁾

한편 다산은 역사 이해에 있어 앞서도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중심의 화이관(華夷觀)에서 벗어나 민족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을 기초로 역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무릇 동·서·남·북의 중간 지점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나 중국이 아닌 곳이 없는데, 소위 동국이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⁷⁹⁾라고 한데서도 잘 드러난다. 정약용은 이미 동서남북의 방위관념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중국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우리나라도 곧 중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리지식의 확대에 따라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화이관을 극복하고 자아인식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그는 조선 문명의 독자성을 자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지닌 고유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

물론 정약용도 우리나라가 “화(華)로서 이(夷)를 변개하여 문물에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으니 소화(小華)라는 호칭이 그 의당함을 얻었다”⁸⁰⁾고 말하여 소중화(小中華)라는 용어 자체를 전혀 거부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소중화적 자존의식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지만, 문화와 민족을 척도로 하는 세계관의 단계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정약용은 탁발위론에서 “중국과 이적의 구분은 그 도(道)와 정(政)에 있는 것이지 강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⁸¹⁾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강역고』에서 우리 민족을 북방의 조선족과 남방의 한족을 포괄하는 동이(東夷)로 보고, 예맥 및 중국계의 유입을 설명한 것과도 일치한다. 더불어 다산은 동호론에서 “조선은 정동에 위치하여 그 풍속이 예를 좋아하고 무를 천하게 여기며 차라리 약할지언정 포악하지 아니하니 군자의 나라로다. 아아 기왕 중국에 태어나지 못할 바에야 동이가 될진저”⁸²⁾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화이의 구분은 문명의 수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이 시기의 역사인식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다산은 한족만이 우수한 종족이 아니라 동이족도 ‘거룩한 종족’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⁸³⁾

이어 다산이 이러한 한국사에 대한 재인식에 기반하여 주변국가였던 청, 일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언급하도록 하겠다.⁸⁴⁾ 그의 지리고증이 고대사의 중심 무대를 한반도에서 찾

78) 조성을, 1994, 앞의 책, pp.338~339.

79) 정약용, 『與猶堂全書』제1집 권13, 送韓校理使燕序. “夫既得東西南北之中 則無所往而非中國 烏觀所謂東國哉”

80) 정약용, 『與猶堂全書』제1집 권8, 地理策. “用夏變夷 文物致煥爛之美 小華之號 洵其宜矣”

81) 정약용, 『與猶堂全書』제1집 권12, 拓跋魏論. “中國與夷狄 在其道與政 不在乎疆域也”

82) 정약용, 『與猶堂全書』제1집 권12, 東胡論. “朝鮮處正東之地 故其俗好禮而賤武 寧弱而不暴 君子之邦也 嗟乎 既不能生乎中國 其唯東夷哉”

83) 이우성, 1976, 「이조후기 근기학과에 있어서의 정통론의 전개」, 『한국의 역사인식』하, p.361.

84) 다산의 대외관에 대해서는 한영우, 1989, 앞의 책, pp.377~385를 참고.

『강역고(疆域考)』를 통해 본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

아 18세기 학자들이 만주에서 찾으려고 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 것처럼, 다산은 중국이나 주변 민족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그는 중국 민족은 선진국(중화)이고, 주변 민족은 오랑캐(이적)라는 전통적인 세계관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시대에 따라 주변 민족도 우수한 문화를 가진 일이 많다고 보고, 종전에 오랑캐로 낮추어 본 북위(선비)·요(거란)·금(여진)·청(만주족) 그리고 일본을 문명이 발달한 나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역사 이해는 도덕적 역사해석에서 사회경제적 역사해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호란 이후 고조되었던 고대사 해석을 객관적 시각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⁸⁵⁾ 더불어 여기에는 청의 중원지배를 인정하고 청과의 우호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협의의 목적과 함께, 이에 기반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세계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현실 인식이 내포되어 있었다.

사실 그간 조선후기에 대한 연구는 일면 근대사와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를 맺고 있음에만 치중하였고, 다산을 비롯한 이 시기 학자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도 고구려·발해 중심의 자국사 인식, 정통론의 변화 등 일부 주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사학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주로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을 지향한 지적흐름의 차원에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조선후기 역사학의 역사성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즉 근대의 시각이 강하게 투사되면서 이 시기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공백으로 남겨졌던 것이다.⁸⁶⁾

이에 여기서는 정약용을 중심으로 하여 이 시기 학자들의 역사 이해에 대해, 조선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다산이 살아간 시기에는 그동안 실학자로 분류한 이들뿐만 아니라, 성리학자로 분류한 인물들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역사연구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향들이 혼재하고 있었는데, 한편에서는 성리학이 강화·심화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리학과 멀어지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근대의 측면에서 거꾸로 찾아가기보다는 조선에서 성리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개가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리라 판단된다.⁸⁷⁾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이 시기 학자들의 역사 이해에는 보편(중화)과 자존(조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내포되어 있었다. 특히 다산의 역사 이해는 이러한 고민을 거쳐 형성된 균형있는 역사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강역고』 저술을 통해 문헌고증을 심화하며 백제사를 비롯한 한국사의 사·공간을 재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강역고』를 통해 본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간 경학과

85) 한영우, 2002, 앞의 책, pp.209~210.

86) 허태용은 연구자들이 조선후기 역사학에 대해 당대의 역사적인 현실 위에서 여러 문화적 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오늘날과의 연관성과 유사성을 찾는 데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허태용, 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pp.15~16).

87) 정재훈, 2011, 「실학자들의 한국사 탐구」, 『한국사시민강좌』48, 일조각, pp.108~111.

경세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산에 대한 연구성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산의 역사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며 『강역고』라는 그의 저서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경한 데서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이 글은 출발했다.

이에 우선 『강역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술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강역고』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강역고』 저술의 배경으로는 19세기 초까지의 역사지리에 대한 일련의 연구에 기초하여 역사지리학이 하나의 학문분과로 형성되고 있었던 시대상황, 근기남인과 노론 북학파로부터 이어진 학문적 성과의 통합,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다산의 역사지리에 대한 성취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에 힘입어 『강역고』는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결코 『강역고』 저술을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이를 완성하였다.

한편 『강역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대정신의 산물인 『강역고』는 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한반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며, 기존 역사지리서에서 나타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약용은 엄밀한 사료비판과 고증을 통해 우리 민족의 기원인 동이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란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강역을 중심에 두고 역사지리를 고찰하였다.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 『문헌비고』 등의 오류가 수정된 것 역시 바로 다산의 『강역고』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그 구성은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기까지의 고대국가의 강역과 역사를 고증하고 있었다. 특히 강역고가 한국고대사를 이원적으로 파악한 점, 삼한과 삼국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 점, 남인계의 일반적 인식이었던 삼한정통론을 극복하려 한 점, 역사의 원동력을 물질적 측면에서 해석한 점 등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며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다산이 지녔던 백제사 인식에 있어서의 특징을 밝혀내고, 마한과 백제와의 관계 고찰을 통해 그가 백제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는 시조전승 문제에 있어, 비류-온조의 부는 우태라는 주장을 지지하고, 백제의 지배층을 부여 계통이라고 보았다. 위례성의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온조가 처음 도읍한 위례는 서울의 혜화문 바깥 10리 지점이고, 온조 13년에 이도한 하남위례성은 광주 고읍이라고 고증하였다. 한성함락 이후 한강 영역 영유 문제에 있어서는 장수왕의 한성공격 이후에도 한강이남지역은 여전히 백제의 영역이었으며 고구려는 한강이북지역까지만 차지하였다고 보았다. 백제의 멸망원인에 대해서는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 천도(遷都)의 실책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하였다.

더불어 마한과 백제와의 관계 고찰을 통해, 다산은 고대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해석에 있어 물질적·제도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양자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그가 종래 신라 중심의 연구경향을 탈피해 백제사 연구에 주목하면서, 한국 고대사를 총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균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음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즉, 다산은 백제-신라-가야-고구려 등 고대국가에 대해서 문헌고증을 통해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산의 역사 이해의 사학사적 위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다산에 의

『강역고(疆域考)』를 통해 본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

해 봉당을 초월한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조선후기 역사지리학의 집대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보편(중화)과 자존(조선)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한국사의 시·공간에 대한 재인식이 나타난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제 다산의 백제사 인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선 인물이라는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산의 역사인식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조선 후기를 살아간 대표적인 역사가로서의 모습을 보다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산이라는 인물에 대한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삼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정약용 이전까지의 한국 고대사 인식은 고구려나 신라 위주의 역사관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산은 『강역고』를 통해 삼국 중 백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한쪽에 치우친 한국 고대사 인식에서 벗어나, 백제사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고 나아가 삼국에 대해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 줄 수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 삼국은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본과는 독도·동해, 그리고 과거사를 둘러싼 문제로, 중국과는 동북공정과 신중화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으로 인해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한국사를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역사인식의 문제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강역고』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은 ‘역사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인식해야 할지를 제고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參考文獻]

- 강남옥, 2012, 「정약용의 삼국영토인식 연구 -『아방강역고』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만길 외, 1990, 『정다산과 그 시대』, 민음사.
- 강재언, 1981, 『한국의 개화사상』, 비봉출판사.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편, 2012, 『실학자들의 한국 고대사 인식』, 경인문화사.
- 고병익, 1965, 「다산의 진보관 -그의 기여론을 중심으로-」, 『조명기박사화갑기념 불교사학논총』, 간행위원회.
- 금장태, 2002, 『정약용 -한국실학의 집대성-』,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금장태, 2005, 『다산 정약용 -유학과 서학의 창조적 종합자-』, 살림.
- 김기섭, 2011, 「백제 한성도읍기 연구동향과 과제」, 『백제문화』44,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김두진, 2008, 「백제의 기원과 건국」, 『한성백제사』2 건국과 성장,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김영관, 2000, 「백제의 웅진천도 배경과 한성경영」, 『충북사학』11·12, 충북대학교 사학회.
- 김중복, 2011,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발해사 연구성과」, 『한국고대사연구』62, 한국고대사학회.
- 김철준, 1990, 『한국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태영, 2002, 「정약용」, 『한국사시민강좌』30, 일조각.
- 김현숙, 2011, 「실학자들의 고구려사백제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62, 한국고대사학회.
- 다산학술문화재단, 1999, 「다산관계저작총목록」, 『다산학』창간호, 전통과현대.
-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 『정본 여유당전서』32, 사암.
- 문창로, 2010, 「백제 시조전승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학논총』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문창로, 2011,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삼한연구」, 『한국고대사연구』62, 한국고대사학회.
- 문창로, 2014, 「성호 이익의 삼한 인식」, 『한국고대사연구』74, 한국고대사학회.
- 박광용, 1990, 「한국인의 역사인식」,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광용, 1995, 「역사서와 역사인식」, 『한국역사입문』2, 풀빛.
- 박시형, 1962, 「다산 정약용의 력사관」, 『정다산 연구』, 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 박인호, 1993, 「남구만과 이세구의 역사지리연구」, 『역사학보』138, 역사학회.
- 박인호, 1996, 『조선후기 역사지리학 연구』, 이회.
- 박인호, 2001, 『제3판 한국사학사대요』, 이회.
- 박인호, 2003,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회.
- 박찬규, 1991, 「백제 웅진초기 북경문제」, 『사학지』24, 단국대학교 사학회.
- 박현숙, 2006, 「백제의 성립과 발전」, 『한국고대사입문』2, 신서원.
- 반운홍, 1977, 「다산 정약용의 민족주체론」, 『현대사학의 제문제(남계조좌호박사회갑기념논총)』, 일조각.
- 백남운, 1933, 『조선사회경제사』, 개조사.
- 성주탁·차용걸, 1981, 「백제의식고」, 『백제연구』1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송호정, 2011, 「실학자들의 역사지리관과 고조선 한사군 연구」, 『한국고대사연구』62, 한국고대사학회.

『강역고(疆域考)』를 통해 본 정약용의 백제사 인식과 그 위상

- 신형식, 1999, 『한국사학사』, 삼영사.
- 양기석, 1980, 「웅진시대의 백제지배층연구」, 『사학지』14, 단국대학교 사학회.
- 유봉학, 1995,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 이기백, 1976, 『한국사신론(개정판)』, 일조각.
- 이만열, 1975, 「17·18세기의 사서와 고대사 인식」, 『한국사연구』10, 한국사연구회.
- 이만열, 2007,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 이명아, 1996,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수 옮김, 1995, 『아방강역고』, 범우사.
-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이우성, 1976, 「이조후기 근기학과에 있어서의 정통론의 전개」, 『한국의 역사인식』하.
- 이용범, 1977, 「새금 윤정기의 역사의식」, 『현대사학의 제문제-남계조좌호박사화갑기념논총』, 일조각.
- 이을호, 1966, 『다산경학사상연구』, 을유문화사.
- 정구복, 1992, 「조선후기의 역사의식」, 『한국사상사대계』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구복, 2006, 「조선후기 역사지리학의 발달」, 『한국실학사상연구』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정구복, 2007, 「조선후기 사학사의 성격」, 『한국사학사학보』15, 한국사학사학회.
- 정만조, 2004, 「조선후기 인물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창간호, 한국인물사연구회.
- 정옥자, 1990, 「실학과 근대의식」,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옥자, 1993,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 정옥자, 200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 현암사.
- 정재훈, 2011, 「실학자들의 한국사 탐구」, 『한국사시민강좌』48, 일조각.
- 정창렬, 1990, 「실학의 역사학 -이익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하), 창작과비평사.
- 정창렬, 2006, 「실학의 세계관과 역사인식」, 『한국실학사상연구』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정혜림 역주, 2001, 『아방강역고』, 현대실학사.
- 조광, 1985, 「조선후기의 역사인식」, 『한국사학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 조광, 2010, 『한국사학사의 인식과 과제』, 경인문화사.
- 조성산, 2009, 「조선후기 소론계의 고대사 연구와 중화주의의 변용」, 『역사학보』202, 역사학회.
- 조성을, 1992, 「아방강역고에 나타난 정약용의 역사인식」, 『규장각』15, 규장각한국학연구소.
- 조성을, 1994, 「정약용」,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과비평사.
- 조성을, 2000, 「정약용의 역사 이론의 전개와 그 성격」, 『국사관논총』93, 국사편찬위원회.
- 조성을, 2004, 「실학자의 역대 수도·천도론」, 『한국사연구』127, 한국사연구회.
- 조성을, 2004, 『조선후기 사학사 연구』, 한울.
- 조성을, 2007, 「조선 중·후기 백제사 인식」,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1 백제사총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조성을, 2008, 「『아방강역고』와 『대동수경』의 문헌학적 검토」, 『다산학』13, 다산학술문화재단.

- 조성을, 2009, 「정약용의 백제사 연구」, 『한국사시민강좌』44, 일조각.
- 조인성, 2011, 「실학자들의 한국 고대사 연구의 의의 -김정희의 진흥왕 순수비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62, 한국고대사학회.
- 지두환, 1987, 「조선후기 실학연구의 문제점과 방향」, 『태동고전연구』3, 한림대부설 태동고전연구소.
- 지두환, 1994, 「조선후기 사상사 연구동향」, 『한국사론』24, 국사편찬위원회.
- 채미하, 2011, 「실학자들의 신라사 연구 방법과 그 해석」, 『한국고대사연구』62, 한국고대사학회.
- 천관우, 1978, 「삼한의 국가형성」하, 『한국학보』3, 일지사.
- 천관우, 1989,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 최익한, 1989, 『실학과와 정다산』, 청년사.
- 한국사연구회, 1985, 『한국사학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 한영우, 1983, 「다산 정약용의 사론과 대외관」, 『김철준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 한영우, 1989, 『조선후기 사학사 연구』, 일지사.
- 한영우, 2002,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 한영우, 2004,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 한영우 외, 2006,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 한우근 외, 1985, 『정다산 연구의 현황』, 민음사.
- 허태용, 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 홍성구, 2010, 「만주역사를 바라보는 한국적 시각의 한 모색 : 허목과 정약용의 만주 제종족 인식을 단서로」, 『역사와담론』55, 호서사학회.
- 홍이섭, 1959, 『정약용의 정치경제사상의 연구』, 한국연구도서관.